

유기동물, 소외이웃 ‘반려 동물’ 분양 호응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버려진 동물들을 1년여 동안 보살피고 길들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려 동물로 분양하고 있다.

유기동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골라 시행하되, 이들 동물의 건강을 체크하고 장기간 직접 기르면서 순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시도 자체가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특히 유기동물 입양자 상당수가 장애인과 독거노인이라는 점과 아파트 생활 가능한 동물이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는 탓에 동물 선택시 신중해야 함은 물론 완벽하게 길들여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지난해 5마리 개를 소외 계층에 입양시킨 데 이어, 올해도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유기동물을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여 가정에 입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는 5개 구청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모집하고, 광주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분양 가능한 동물을 선별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분양 사업을 담당한 보건환경연구원 최종욱 수의사는 적합한 분양 동물을 고르기 위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개가 있으면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 가량 키우면서 관찰한다고 한다. 유기동물 선택 기준은 다세대 작은 가정에 어울리는 순종, 작고 조용하고 잘 훈련된 동물이면 적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독거노인 등에 입양 확대

건강검진·물품 지원·방문 돌봄 서비스 등 실시



반려동물 분양방기를 원하는 시민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과 함께 동물보호소를 방문하고 있다.

합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일 동물보호소를 방문한다고 한다.

최종욱 수의사는 맘에 드는 품종이면 일주일 가량 키운 뒤, 입양대가자에게 사

진을 보낸다. 대가자가 맘에 들어 하면 동물보호소 수의사와 함께 예방접종, 필요시 중성화, 동물 등록, 미용까지 한 뒤 직접 대가자 집에 데리고 가 분양을 한다.

이 같이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

구부는 분양할 동물이 결정되면 건강검진 후, 분양을 원하는 소외계층 가정에 유기동물과의 만남을 주선해 분양하고 기초 사육 교육과 동물등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분양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기초 사육물품 지원, 자원봉사자의 방문 돌봄, 전문 수의사의 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양받은 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기로 하고, 올해 첫 공동 사업을 제안해 온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최근 업무협약을 맺어 입양 대상 가정 선정과 사회복지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종욱 수의사는 “분양한 동물 중 절반은 입양자가 못 키우겠다고 해 한 달안에 돌아온다”면서 “돌아온 애들은 복지관이나 동물보호소 앞에 전시해 원하는 소외계층이 데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양받은 가정에는 한달에 한 번씩 사료와 샴푸, 약품을 가지고 전담대수리대생 자원봉사자와 함께 방문해 동물상태를 살피고, 발톱도 깎아준다”면서 “키우는 데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고, 각박한 일상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하도급지킴이시스템’ 힘 되네

시 운영, 대금 지급 등 실시간 확인 ... 건설사 호응

광주시는 운영중인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 중소기업업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하도급자와 노무자까지 대금 지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전자하도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노무자, 하도급업체, 자재 및 장비 대여업체의 대금 지급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해 건설업자 공사대금의 실시간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민회관 재조성 공사’ 등 52건 509억원의 관련 공사대금을 ‘건설업자대금지급확인시스템’과 연계

해 지급 처리했다. 특히 광주시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대해 타 시·도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5월부터 광주시에 자체 개발해 시행한 ‘건설업자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이 기능이 전자하도급 계약과 통보 자동화 기능을 추가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전국 자치단체에 개방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나 하도급업체 등 건설업자들의 생활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산하 단체의 운영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시민협-대구 문민협 ‘동서 화합’ 신뢰쌓기

워크숍 참석 등 상호 교류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와 대구문화시민운동협의회(이하 문민협)가 최근 양 협의회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동·서간 화합과 신뢰의 벽을 쌓아가고 있다.

광주 시민협 사무처직원들과 시민강사들은 대구 문민협 초청으로 ‘2014 시민강사 위촉장 전달식 및 워크숍’에 참석해 ‘미소전설 대구 프로젝트 계획’ 등 대구시정과 2015대구·경북세계물포럼, 시민강사 사례발표 등 대구 문민협이 마련한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지난 2011년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글로벌 시민교육에 앞장서 온 대구시민강사들은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면서 “시민강사들도 재능기부, 공동체교육, 자기중심탈피, 사명감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역 시민협의회는 광주시와 대구시간 달빛동맹을 계기로 상호 교류 활성화는 물론 국제행사성공을 위해 경험을 전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기로 지난날 광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 요원 수화 교육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119 영상 신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최근 이들 동안 119 상황요원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광주시 서구수화통역센터 최연서 수화통역사를 초청해 119상황요원을 대상으로 언어·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화제, 구조, 구급 등 상황별 신고 접수에 관한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했

다.

나강문 119종합상황실장은 “수화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교육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119 상황요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정의 달 ‘어린이 식품 안전점검’ 강화

306개 초·중·고교 주변 그린푸드존 관리원 배치

광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등 식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식품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관내 초·중·고교 인근에서 부정불량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306개 학교 주변 200m 안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 107명의 전담 관리원을 배치한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담 관리원은 월1회 이상 그린푸드존 내 문구점과 음식 판매점 등을 방문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무신고 제품 판매 ▲위생취급기준 위반 여부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우수 판매업소 발굴 지정, 식품 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와 고발 등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그린푸드존 내 1268곳의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해 1만1396건

을 점검해 36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81개 점포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광주시는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단체급식 시설에 대해 영양 및 위생관리 기술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영양사 39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600곳을 방문해 조리사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어린이 2만 2000명에게 채소와 친해지기, 꼭꼭 씹어먹기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문제업소가 신고되면 즉각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4 에픽스 포럼’ 포스터 공모

광주U대회조직위, 25일까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운태·정의화, 이하 조직위)는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4 에픽스 포럼’의 포스터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스포츠, 예술과 문화를 만나다!(Sport meets Art and Culture)’를 주제로,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문화를 통한 스포츠의 다양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2014 에픽스 포럼’

의 주제이기도 하다.

공모전에는 국내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3명 이내의 팀 단위로 응시할 수 있으며, 출품작은 팀당 3점까지 가능하다.

응시자는 오는 25일까지 작품 설명서와 출품작 이미지를 함께 이메일(epics@kwangju2015.com)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6월 중순께 조직위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직위 홈페이지(www.kwangju2015.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북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오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칠곡	961-2339
월양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진단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침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순창군	063)653-0444
군산시	063)467-2500	고창군	070-8201-0370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원시	063)633-9911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 광주일보 since 195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_062
227-9600

신문구독 _062
220-0551

예향구독 _062
220-0550